

2월의 기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굳어 기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박예림, 오주봉, 이금란, 이태원 내과의원, 원소선,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 목사),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십자가의 향기

아기에게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병원에서 조산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헥토르 마르티네즈(Hector Martinez) 박사가 ‘캥거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새끼를 자신의 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기르는 캥거루 아시지요? 그 캥거루처럼 어머니의 옷 안에 조산된 아기를 넣어 어머니의 체온과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놓았더니 조산아 사망률이 60%에 이르렀던 것이 5%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빨간 핏덩어리들을 등에 업고 다니며 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체취를 6개월에서 1년이상 맡고 자라니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의 주머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과 기쁨도 주옵소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향기로 감싸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단단히 버티고 살아있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생토록 품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향기로 감싸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단단히 버티고 살아있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an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2018년 새해 새소망-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오중복음·삼중축복의 은혜 누리는 창립 60주년 기대



“1992년 러시아 크렘린 궁에서 열린 모스크바대성회”

1.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불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순복음교회 개척자이신 목사님의 감회가 금강합니다.

60년 세월 묵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큰 사역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라 감개무량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립니다.

2. 지난 6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교회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면서 서대문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로의 이전을 결정하고 1969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오일쇼크와 달러 하락 등으로 건축의 위기를 맞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를 향해 ‘이제 끝이다.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뼈대만 올라간 앙상

한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1만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험난했던 과정을 거쳐 세워진 여의도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의 결과입니다. 순복음의 성도들이 80만 명까지 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적입니다.

3. 목사님은 반세기 넘게 전세계에 ‘희망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997년 브라질 성회 때도 150여 만명이 모이는 등 성회 때마다 큰 감동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성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1992년에 열린 구 소련(러시아) 모스크바 성회입니다. 크렘린 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크렘린 궁 성회가 금지 돼 인근 공원으로 옮겨 성회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거리의 시민들까지 참석해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대 개신교 집회였던 성회가 열렸을 당시는 74년간의 공산주의를

청산하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지 2년 만이라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주님의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지금도 해외에 나가면 ‘데이비드 용기 조(David Yonggi Cho)’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60주년을 맞아 목사님의 새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목사뿐 아니라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서양인 중심인 선교에서 동양인인 나도 전세계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다짐했고, 유럽을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지구를 120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면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을 다시 방문해 성회를 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면에 계속 이어집니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2~2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삶에 부는 바람과 파도

인생의 쓴물을 우리들도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또한 목이 마르고 쓴물이 있는 곳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길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쓴물을 마시고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강단에 서서 입만 열면 설교란 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란 것은 같이 마음에 고통을 당해 보고, 울고, 가슴 쳐보고 그 속으로 나오는 물이 단물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나무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아무리 쓴물이라도 그가 들어가지만 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그의 생활 속에 끌어안으면 의로움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쓴물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생활에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쓴물도 주님을 끌어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쓴물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심이라. 나무를 저주에 던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생활에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쓴물도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부활과 천국의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쓴물을 마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4차원의 영성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단물인데, 십자가를 넣어서 단물이 된 물은 우리가 마시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우물하겠다’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희망찬 꿈입니다. 이 단물을 마시고 나면 마음에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보통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선언. 입술로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 말을 실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주겠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하

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3.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고민으로 가득 마음이 차 있으면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마음에 근심을 제하고 기쁨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성령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쉴 때 숨이 가슴속에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연합함을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쓴물이 안 다가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부부 사이에도 생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쓴물이 날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모조리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생각 속에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십자가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꿈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새해 새소망-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면에 이어서)

5. 그중 ‘아! 이곳은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유럽의 스위스에서 개최됐던 성회는 교계가 연합해 열린 성회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열렸던 성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6. 매년 송구영신예배 때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올해는 자신의 꿈을 종이 에 적고 그 꿈이 이뤄질 것을 바라보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희망찬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

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꽃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꿈을 품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짚어보며 읽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을 더욱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8년 우리 모두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해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더욱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



“1979년 유럽 성회”

어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목회도,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전쟁의 소문이 떠돌고 있고, 언제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집 1월의 하이라이트

되돌아 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월의 성회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 오사카순복음교회 신년축복성회

1964년 조용기 목사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계기로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다. 1975년 4월에는 순복음세계선교회가 설립되어 해외 선교가 본격화되었고, 1976년 순복음북미연합회와 순복음구주연합회가 결성되어 북미, 남미지역과 유럽 지역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1978년 일본선교회가 발족되면서 복음의 불모지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일본 1천만구령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성령운동을 일으켜 온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선교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1월에 열렸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성회를 다시 되짚어 보았다.

2016년 1월 11일 일본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에서 열린 신년축

복성회에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통역은 DCEM사무총장이자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시민이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성령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명의 정탐꾼과 엘리사를 통한 사르밧 과부의 기름 예화를 말하며 2016년 새해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타오르는 꿈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 후에는 기도제목과 병 고침을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이



“2016년 1월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이어졌다.

1월 13일 조용기 목사는 오사카로 이동해 오사카순복음교회(담임 정대원 목사)에서 성회를 인도하며, 오중복음과 4차원의 영성으로 삼중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